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한국의 지식인, 그 부끄러운 자화상



김성종 작가·추리문학관관장

반면 같은 시인이면서도 미당 서정주는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는 행적을 보여준다. 가미가재 특공대원으로 죽은 일본군 오장에게 바친 헌시는 읽을수록 얼굴이 화끈거린다. ‘그대는 우리의 오장, 우리의 자랑.(중략) 우리의 땅과 목숨을 뺏으러온 원수 영·미의 항공모함을 그대 몸뚱이로 내리쳐서 깨졌는가. 장하루다. 우리의 육군 항공 오장 마쓰이 히데오여.’

매천(梅泉) 황현(黃玹)은 구한말 시인 문장가로, 1855년 전남 광양에서 태어나 구례에서 집거하며 살다가 1910년 나라가 망하자 며칠 후 통분을 이기지 못해 절명시(絶命詩)를 남기고 음독 자결했다. 그때 나이 56세. 절명시 한 수가 가슴을 저민다. ‘새 짐승도 슬피 울고 강산도 쟁그러네. 무궁화 온 세상이 이젠 망해버렸어라. 가을 들불 아래 책 덮고 지난날 생각하니, 인간 세상에 식자 노릇하기 어렵기만 하구나.’ 그는 다음과 같은 유서를 남기기도 했다. ‘내가 죽어 의를 지켜야 할 깨닭은 없다. 다만 나라가 선비를 기른지 5백년인데 나라가 망하는 날, 한 사람도 책임을 지고 죽는 사람이 없다면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미당의 비열한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십 년 후까지 이어진다. 1987년에 발표된 전두환의 56세 생일 축시를 보자. ‘한강을 넓고 깊고 또 맑게 만드신 이여, 이 나라 역사의 흐름도 그렇게만 하신이여, 이 겨레의 영원한 찬양을 두고두고 받으소서. 새 맑은 나라의 새로운 햇빛처럼 님은 온갖 불의와 혼란의 어둠을 씻고 참된 자유와 평화의 번영을 마련하셨나니(중략)’ 한 번은 고은이 미당의 친일 행각을 비판한 적이 있었다. 옳은 지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당의 제자들이 별뿔처럼 들고 일어나 감히 한국의 시성(詩聖)을 비난하더니 하면서 고은을 맹렬히 공격했다. 이런 얼빠진 지식인들 덕분에 미당은 죽을 때까지 한국 최고의 시인으로 대접을 받았고, 고창에는 그를 기리는

문학관까지 국비로 운영되고 있다. 미당은 시성이 아니라 시를 더럽힌 시인이었다. 그에게는 지식인으로서의 정의나 양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시적 감각과 감성만이 존재했을 뿐이다. 시적 기교와 감성적 문체는 부도덕한 사람도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미당이다. 서구의 경우 지식인 그룹 가운데서 작가나 시인들은 단연 시대를 리드하는 ‘행동하는 지성’으로 손색이 없다. 1936년 스페인에 프랑코를 중심으로 한 파시즘 세력이 내란을 일으키자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세계의 작가들이 국경을 초월하여 전쟁에 뛰어들었다. 대표적인 작가로 헤밍웨이, 말로, 조지 오웰, 케스틀러, 도스파소스, 네루다 등이 있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는 울리나’ ‘희망’ ‘카탈루냐아 찬가’ ‘한낮의 어둠’ 등 걸작들이 탄생했다. 2차 대전 때에는 사르트르, 카뮈, 말로, 레마르크, 앙드레 모로아, 지드, 아라공, 베르코르 등 많은 작가들이 나치에 저항하여 레지스탕스 운동을 벌였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인들은 부끄럽게도 일제에 충성을 맹세하고, 군부 독재시절에는 권력에 아부하기를 서슴치 않았다. 그 중 가

장 악랄한 것은 언론인 출신이 군부 세력에 빌붙어 언론 통제함에 앞장서고 같은 동료들을 학살한 점이다. 꽃의 시인으로 알려진 유명만 노시인은 군사정권 하에서 전국구 국회의원 자리를 주자 감응하여 기꺼이 여당의 거수기 노릇을 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입을 꼭 다문채 내 한 몸만 지키면서 편하게 지내는 지식인도 있다. 영특하기 짝이 없는 그는 시대의 아픔을 철저히 외면한 채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고, 수많은 저서를 통해 구름 잡는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았다. 그런데도 오늘날 그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으로 굳건히 자리잡고 있다. 시인 김지하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서인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말인들을 여과 없이 쏟아내 우리를 당혹케 하고 있다. 진보적인 지식인으로 지식인의 전범을 보여주고 있는 백낙청을 느닷없이 비난하는 글을 신문에 발표하다니 얼마 후에는 문재인에게 투표한 48%의 국민들을 공산당을 쫓는 국가 전복세력으로 몰아붙였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이 이 모양 이 꼴인 것을 보면 매천의 말마따나 정말 지식인 노릇하기가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다.

의료칼럼

봄의 불청객 춘곤증



류성통 경희대학원장

봄, 모두의 삶의 시계는 바쁘게 움직인다. 하지만 이런 바빠야 하는 계절에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춘곤증이다. 춘곤증은 봄에 찾아오는 계절성 피로증상을 말한다. 나른하고, 졸리고, 피곤한 것이다. 몸이 깨부동해져 자꾸 기지개를 켜게 되고 하품하며 꾸벅꾸벅 어는 틈에 졸고 있다. 학생들은 선생님 눈치 보기면서 졸고, 직장인은 상사 눈치 보기면서 서류철에 침을 흘리고 있다. 춘곤증의 원인은 솟아나고, 뿔어나가고 무엇이지도 모른다. 봄의 기운을 우리 몸이 따라가지 못해서 생긴다. 추위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갑자기 따뜻해진 봄에 적응하지 못하고,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면서 수면시간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늘어나는 데 휴식과 영양섭취가 부족해질 경우 발생하기 쉽다. 춘곤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적절한 영양섭취가 필요

하다. 자기 수준에 맞는 운동을 적어도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 해주는 것이 도움 된다. 따뜻한 봄기운을 느껴버 걸거나 가볍게 뛰고 자전거를 타는 것이 좋다. 땀나는 대로 몸을 축축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운동을 받게 하는 것은 숙면에 방해가 되므로 가끔씩 낮에 해야 하고, 갑자기 무리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조금씩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은 최소한 7~8시간 정도 질 좋은 잠을 자야 한다. 주변 환경을 개선해 항상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해 주말에 몰아서 잠을 자는 것은 생활리듬을 깨뜨리고 더욱더 몸을 피곤하게 할 수 있으므로 항상 규칙적인 수면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당장 배고프다고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을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봄에 나는 냉이, 달래, 두릅 등 봄나물과 채소 등을 많이 먹으면 인체에 활

기를 주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또한 기운을 내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다. 하지만 기름져서 소화시키기 어렵고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육류보다는 생선이나 콩, 두부 같은 곡물로 먹는 것이 좋다. 그래도 잠이 오고 피곤할 경우 머리 뒤쪽에 움푹 들어간 곳에 있는 풍지혈과 양쪽 눈썹 가쪽에 있는 태양혈을 지압해주면 눈과 머리가 맑아지고 잠을 쫓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소리가 계통 기능을 개선하고 에너지 대사를 원활히 해주는 황기, 인삼, 백출, 진피, 시호 등의 보기(補氣) 한약은 나른한 봄날을 활기차게 해준다. 춘곤증으로 인한 피로감은 보통 1~2주면 사라진다. 피로감이 수주 지속되거나 단순히 나른한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서 기운을 회복해야 한다.

社說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방치 더 이상 안된다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이 표류하고 있다. 이는 박람회 수입금으로 정부가 투자한 빚을 갚아 사후활용을 위한 자금이 사실상 없다는데 있다. 또한 박람회재단 인선도 더디고, 순천정원박람회 개막에 맞춘 재개장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어 수십 년째 방치됐던 ‘대전 엑스포 실패’를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박람회조직위 청산단은 박람회 수입금 정산 후 500억 원을 정부에 상환했고, 조만간 250억~300억 원을 추가로 갚을 계획이다. 지난해 여수박람회 준비를 위해 정부로부터 빌린 4846억 원 가운데 공적자금 1000억 원을 먼저 갚기 위해 수입금 대부분을 지급했다. 나머지 3846억 원도 올해 안에 박람회 부지를 일괄 매각해 갚아야 한다. 상환을 위해서는 유일한 자산인 박람회 여수 등 남해안 일대를 ‘해양 관광 메카’ 박람회 이후 정부 빚 상환에 급급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제는 덩치가 큰 부지를 매수할 기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부지 매각에 나섰지만 사겠다는 기업이 없었다. 부지 비용과 추가 건축에만 적어도 5000억 원이 들기 때문에 엄두를 못낸다고 한다. 게다가 사후활용 주체인 재단 운영도 안갯속이다. 지난해 2월 뒤늦게 재단 이사장이 선임됐지만 이사 정원 9명 중 5명이 아직 공석이다. 조직과 예산 규모도 당초 54명, 71억 원에서 36명, 30억 원으로 대폭 줄었다. 사후활용을 위한 재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다.

대기업 불공정행위 근절, 결과로 보여줘야

역대 정권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겠다고 떠들었지만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때와 때를 맞춰 중소기업들은 국내의 경기 침체로 수출 부진, 내수 부진에다 자금난까지 겪고 있다. 여기에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와 불합리한 제도가 고질화되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권마다 바뀌지만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 현장에서도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불합리한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너무나 어음결제 기일과 납기 독촉,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참석자들은 어음 결제기간 3개월 이내 발행, 납기 및 납품단가 현실화, 개발과 개발비의 대기업 분담 등을 요구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인증이 수십 가지에 이른다며 인증 절차 간소화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기업인들은 이날 해외수출 판로 개척 지원과

특허기술 활성화 방안 등 30여 건의 개선사항을 관련 기관에 전달했다. 현재 우리 중소기업들은 국내의 경기 침체로 수출 부진, 내수 부진에다 자금난까지 겪고 있다. 여기에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와 불합리한 제도가 고질화되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권마다 바뀌지만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빼기’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이다.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중소기업에 살리려면 정부가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법과 제도화시켜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는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 가운데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이 살고, 우리 경제도 산다.

기고

‘빅 소사이어티’와 지속가능한 광주공동체



이상배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기술담당관

개념과 반대되는 의미로, 정부 역할을 줄이고 시민 사회단체의 공적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치유하자는 큰 기획이자 미래 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초기에는 그 개념이 모호해 도대체 무엇을 한다는 뜻인지 모르겠다는 반응과 경기 침체와 재정 적자 위기 속에 정부 지출과 공공 복지 서비스를 줄이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근본적인 지향과 정책 방향은 대체로 공감 을 얻고 있다. 정부의 권한을 지방과 지역사회에 이양하고 지방 분권과 분책 그리고 지방 자치의 강화가 결국 국가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데에는 반론이 없기 때문이다. 카메론 총리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기여하거나 공헌할 수 있거나 또는 사회의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것이야말로 미래 영국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라고 말한다. 한편 영국정부가 빅 소사이어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 가운데 크게 두 가지 프로젝트가 주목을 받았다. 대부분의 정책은 그것을 현실에 적용시키는 과정에서 왜곡되고 비판받지만 이들 프로젝트는 큰 호평을

받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역 사회 공동체 지도자를 육성하는 정책으로 5000여 명의 리더를 양성하고 훈련시켰다는 점이다. 이들로 하여금 지역 사회 공동체를 이끌고 지역 사회 주민들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하는 주체로 만들어 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지방 자치를 강화하는 법을 제정했고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그리고 노동자 기업 등 공공과 민간이 결합한 제3섹터 시장을 통해 사회복지프로그램이나 쓰레기 수거 등 공적 기능을 실질적으로 맡도록 하기도 했다. 두 번째는 재원마련 방안이다. 영국 정부는 1년 전인 지난해 4월 사회투자기금인 ‘빅 소사이어티기금(Big Society Capital)’을 출범시켰다. 기금 재원은 은행들의 휴먼 예금과 4대 민간 은행의 출연금으로 했으며, 그 규모는 1조1000억원(6억 파운드)에 달해 별도의 독립기구가 운영하게 했다. 이 기금과 같은 사회투자기금은 기부나 후원과는 달리 재무적 이익을 고려하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이 질과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을 지닌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

는데 쓰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좀 전에 언급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고, 그곳에서 얻어진 이익이 다시 기금이 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쉽게 보면 ‘주는 복지’가 아닌 ‘투자 가치가 있는’ 복지 개념으로 공동체 전체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 최근 서울시도 이와 관련 조례를 마련해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필자는 듣고 있다.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등이 대안적 경제 모델로 크게 조명받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부문들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영국의 빅 소사이어티 정책은 좋은 전례가 될 수 있다. 현재의 사회적 기업 간 네트워크를 조성함으로써 협력체계를 갖추고 이를 보완아 나간다면 지속가능한 광주공동체를 가꾸어 나가는 데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그리고 지방 자치의 강화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면, 우리 스스로 지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좋은 이웃을 만들어 가는 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일자리 창출에 비상이 걸리고 경제성장률이 곤두박질 치면서 정부가 15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세우 경기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또 국민행복기금 선포식을 통해 서민금융 구제와 4·1 부동산 대책 등 박근혜 정부가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취임 한 달 여가 지나면서 불통정치라는 비난이 일면서 위기의식속에서 나왔다. 이들 정책들은 모럴 해저드, 세금 깎아 부동산 경기 부양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물론 시행도 하지 않고 비판의 메스부터 가하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정책 프레임은 나비효과에 대해 한 번쯤 숙고할 필요가 있다.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는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과학이론으로 나비의 날개 짓처럼 작은 변화가 폭풍우와 같은 커다란 변화를 유발시키는 현상을 일컫는다. 나비효과는 지난 1963년 미국의 기상

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E. Lorentz)가 컴퓨터로 기상모의 실험하던 중 초기 조건의 값의 미세한 차이가 엄청나게 증폭돼 아주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을 발견해 알려졌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기상계는 한없이 복잡한 궤도로 일정한 범위에 있으면서 서로 교차되거나 반복됨 없이 나비의 날개 모양을 끝없이 그려내고 있었다. 그림은 혼돈스러워 보이지만 일정한 모양새를 갖춘 규칙성이 숨어 있었다. 이와 같이 혼돈 속에 질서가 내재되어 있다는 나비효과가 확립됨에 따라 카오스 이론(Chaos Theory)이 등장했다. 이 가상의 현상은 기존의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른바 ‘초기 조건에 민감한 의존성’, 곧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좋은 쪽이면 나쁜 쪽이면 지금 한 사소한 행동이 충격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나비효과’를 살피고 정책 입안자들은 최선을 도출해 내야 한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나비효과

교단의 고령화 문제 심각...젊은교사 수혈 늘려야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제 때래 친구 녀석들과 대화하면서 “아무게 선생님은 000도 모르셔”라며 투덜대는 소리를 들었다. 그 000은 요즘 좀 인기있는 가수 이름인 듯했고 아무게 선생님은 연세가 50대 초반이시라 했다. 선생님이 가수 이름을 죄다 외우고 다닐 필요도 없고, 또한 모른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 젊고 넘어갈 부분은 없다.

이미 오래전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한국.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의 취업, 고령자 일자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고령층 상황에 맞는 일자리와 별개로 다른 분야와 달리 교직 분야의 고령화 문제는 그저 고령층 취업이나 교사의 청년연장 문제 정도로만 불일은 아닌 듯 하다. 우리나라 교단이 늙어가고 있다는 걱정은 오래전부터 해온 일이다. 우리나라 교사들

의 연령 분포를 보면 40, 5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덩달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평균 연령이 자꾸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단의 고령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게 하는 이유이다. 40대 이상 교사들의 수업과 생활 지도력은 젊은 교사들보다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0대 학생들과의 세대 차이를 느끼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거나 상호 접점을 찾기보다 교사의 권위로 억제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일종의 세대간 충돌, 문화 충돌이 빚어져 학생교육에 적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걸 알면서 교단의 고령화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신입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마다 교사 숫자가 늘기는 하지만, 학생수에 비하면 교원은 여전히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한다. 예산 탓인지는 모르지만 국가백년지대계를 세우는 일에 예산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본다. 젊은 교사들이 더 많이 들어와 교단에 젊은 피를 수혈하고, 고령 교사의 노후와 젊은 교사의 열정이 조화를 이루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문성희·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鎔 | |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광동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 |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내선))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회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 경제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대변부 2200-621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조서부 2200-571 |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00-661 (F A X 227-9600) (F A X 227-9500) 디지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